

## 소설 부문 심사평

우리 심사위원은 소설을 심사하면서 5.18정신의 확장에 주안점을 두었다. 1980년 5월 당시의 투쟁에 대해 새로운 질문과 발견이 문학적으로 제출된 작품들이 응모되었기를 바랐다. 5.18 당시를 그렸다고 해도 문학적으로 새롭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5.18 40주년을 맞이하여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전국화와 세계화로 나가기 위한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5.18 정신의 핵심은 시민 민주주의의 확장, 인권의 보호, 국가폭력의 상처 극복과 인간 발전 가능성에 있다고 본다. 5.18의 광주는 세계 곳곳에서 민주화 투쟁, 국가폭력, 전쟁, 인권 차별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치유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민주주의의 성지가 되는 것이다. 과거를 기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이 5.18이 보편성을 획득하는 길이며 국제화로 나가는 길이다.

그런 관점에서 작품을 찬찬히 읽은 결과, 우리는 <시크릿 박스>와 <제주, 푸른 밤바다>를 주목했다.

먼저 <시크릿 박스>는 화자와 두 명의 남녀 장애인이 등장하는 소설이다. 소설의 문학성은 작품의 흐름에 따라 인간 실존이 어떻게 발전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 작품 주인공 소라가 그러했다. 선천적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가 있는 인물이었다. 소설의 화자는 어쩌면 ‘광주’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광주’가 세계의 상처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포용해야 하는 의미를 중요하게 보았다.

<제주, 푸른 밤바다>는 예멘에 두고 온 아내 파티마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소설이다. 전쟁과 국가폭력으로 인해 난민이 되어 떠도는 주인공과 예멘인들이 제주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형상화했는데, 편지 형식이 주는 간절함이 눈에 띄었다. 이 작품 역시 상처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실존하려고 세계와 사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각기 다른 내용과 형식의 두 작품을 두고 심사위원들은 고민에 빠졌다. 두 작품 중에서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많은 고민 끝에 두 작품 모두를 당선작으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당선자들에게 무한한 문학적 행운이 있기를 빈다.

심사위원 <정도상, 김현주>